

2021년 교회표어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사7:11)

마음이 청결한 자 : 심플 마인드

- 사도신경
- 찬 송 438장
- 기 도
- 성경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삶 나누기

내가 기도하며 바라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반면 순종했던 결과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뤄가셨던 일들을 말해 봅시다.

말씀나누기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안에 끼어 있던 불순물을 제거한다. 위선과 구김살이 없으며 숨겨진 의도가 없이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즉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내 안의 모습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형식과 외모에 치우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속'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혼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역할(role)을 매우 높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 영혼과 역할의 간극이 커져가며 자유와 기쁨이 없고 위선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청결한 영혼에서 비롯된 역할에 충실한 삶에 진정한 내적 자유함이 있고 주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청결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영혼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영혼이 쇠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하셨습니다. 즉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느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단순한 순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나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으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입니다.

일심(一心)과 전심(全心)으로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고 담백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두 마음을 갖게 된 사울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는 몸을 감출 정도로 순수하고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

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하며 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울왕은 버렸던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겿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뚜렷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용기내어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말씀 나눔

1.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2.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내 안의 모습을 일치시키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하며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